



장애인이 세상을

---

바꾸는 사회

혹시,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지나친 편견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팔 없는 택시 운전자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 중학교 친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 보니 벌써 약속시간 까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흐르는 택시 운전사의 어색한 기류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역시 택시다운 운전 실력 이였습니다.  
과격하다면 과격하고 기술적이라면 기술적인 택시의 운전  
덕분에 다행이 친구와의 약속엔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 계산하기위해 카드를  
운전사분에게 드리려는 순간, 손이 없는 두 팔로 제 카드를  
받으시더니 카드리더기에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뺐을 때는 핀셋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능숙하게  
카드를 뺐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 느꼈던 심정은 ‘놀람’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얼마가지 않고 장애를 딛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리와 함께합니다

장애인은 우리가 챙겨야 될 짐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회적인 인간입니다